손으로 쓰는 연하장

이 의 일

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.

지난 해는 모두에게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다.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일은 없었던 일이었다. 너 나 없이 어려우니 사람의 감정도 메마르는 모양이다. 이맘 때쯤 이면 한 해의 저묾을 알리는 연하장을 보내느라 주소록을 확인한다든지 명단을 만들면서 바빠지게 마련이겠지만 어쩐지 그럴 기분도 아니고 꼭 보내야 될 데라고 뽑아놓은 곳도 자꾸 줄어드는 것이 더욱 마음 울적하게 만든다. 또 배달되는

약력 : • 68~69 대한석탄공사 • 69~74 대한조선공사 • 74~93 한국후지쯔 • 93~현재 세중컴퓨터 시스템즈 대표이사

카드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니 보낸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인 모양이라고 짐작하며 세태를 가늠해 본다.

늘 보내고 받는 메일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크를 안 하면 무언가 잊은 것 같아서 뒤지게 된다.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메일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가운 김에 얼른 열어보니 얼씨구 이사람 무얼 할 줄 아네… 예쁜 그림에 멜로디까지 보내왔구먼. 뭐 그런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 건만 어쩐지 우리 정서에 안 어울리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. 아마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음에 맞는 그림과 글씨, 그리고 멜로디를 선택해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(분명 복수이겠지) 어드레스를 지정해서 보냈겠지. 백 사람이고 천 사람이고 순식간에 보내 질 터이니 아무래도 기계 냄새가 나고 정이 안 느껴짐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.

아무리 컴퓨터고 기계화, 자동화라 하여도 사람냄새가 나는 것이 나는 좋다. 붓글씨는 아니더라도 정성을 들여 쓴 안부인사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나만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.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인사만큼이라도 정을 듬뿍 담아 보내 보자. 산보하다 어긋난 복숭아뼈는 어떤지, 지난 봄 결혼시킨 자식들은 재미있게 잘 사는 지, 아니 벌써 손자 소식이 있는 것은 아닌 지 한번 물어 보자.

손으로 쓰니 그렇게 많이 쓰지도, 보내지도 못하겠지만 보낼 만큼만 보내자. 형식에 억 매여서 보내거나 마지못해 보내지는 말자. 받

아서 기뻐할 사람에게만 보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이룰 터이니 말이다.